

도시 근로자가계의 주생활비 소비지출구조분석

—1982년부터 1992년까지—

An Analysis of Housing Consumption Expenditure
in Urban Salary and Wage-Earners' Households

—From 1982 to 1992—

경성대학교 이과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金英淑

경성대학교 이과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沈美英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 Sung Univ.

Associate Prof.: Yeong Sook Kim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 Sung Univ.

Lecturer: Mi Young Sim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주생활비의 소비지출구조분석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e of Housing Consumption Expenditure of urban salary and wage-earners' households from 1982 to 1992, by employing Time-series.

Data was based on "Annual Report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 Planning Board, Republic of Korea.

Percentile, marginal-propensity to consume(MPC) and income elasticity of consumption expenditure are estimated by their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variab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proportion of the expenditure for furniture and utensils and house mending has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income in urban salary and wage-earners'

households, while fuel, light and water charges and rents paid has decreased.

2.1) Engel Function by income group; MPC associated with rents paid and fuel, light and water charges is higher in the the lower income group than in the rest. The income elasticity estimates in rents paid and fuel, light and water charges is less than 1 in all group, while larger than 1 in furniture and utensils and house mending.

2) Engel Function by occupation of household head; The highest MPC in rents paid is associated with the sales profession. The income elasticity of fuel, light and water charge is found be inelastic. The groups other than the sales group show irregular MPC.

3) Engel Function by family size; MPC in house mending and fuel, light and water charge is increased, while is decreased in rents paid in accordance with family size. The income elasticity of rents paid and fuel, light and water charge is less than 1 in all groups, while that of house mending and furniture and utensils is larger than 1.

4) Engel Function by age of household head; MPC in rents paid is decreased according to the age of household head. The income elasticity of rents paid and fuel, light and water charge is less than 1 in all group, while it is larger than 1.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된 이후 한국 경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1인당 GNP는 1962년의 87 달러에서 1992년 6,749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정부와 함께 3대 경제주체중의 하나인 가계도 소득증대와 더불어 소비지출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경우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 집중 및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른 가구수의 증가 그리고 소득수준의 향상은 주택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수요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주생활면에 있어서 1인당 주거면적의 증가, 생활환경의 개선 등 주거의 질적 향상으로 인하여 생리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보다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 근로자가계의 주생활비의 지출구조에 있어 지난 30년간 가구집기·가사용품비를 포함한 전체 소비지출에 대한 주거비의 구성비는 1963년 4.0%, 1966

년 3.3%, 1971년 4.9%, 1976년 7.9%, 1981년 8.4%, 1986년 9.9%, 1992년 10.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광열비의 경우 1963년 6.1%, 1966년 6.2%, 1971년 5.4%, 1976년 5.9%, 1981년 8.4%, 1986년 수도비를 포함하여 7.0%, 1992년 4.1%로 80년대 이전에는 불규칙적인 증감을 보이다 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Engel의 소비법칙에 따르면 주거비와 광열비의 지출비율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나 이것은 Schwabe에 의하여 반론이 제기 되었는데, 즉 소득이 증가하는데 따라 주거비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칙에의 적용은 개별가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가계의 특성에 따른 소득과 주생활비에 해당하는 소비지출의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여 긴요도를 파악함으로써 명확해 질 수 있다.

최근의 연구는 비목별 소비지출에 대한 결정요인을 확인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식료품비, 교육비, 피복비, 교통·통신비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생활비의 지출구조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주생활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기시계열 분석으로서 소비지출이 현재의 가치분소득의 함수라고 보는 Keynes의 절대소득가설을 토대로 엔겔함수를 추정함으로써 현재의 소득이 주생활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1982-1992년의 주생활비의 지출의 구성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2. 인구통계적·사회경제적변인에 따라 주생활비 지출의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주생활비의 소비지출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중요성

경제개발계획의 실시 이후 소득수준의 증가로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목별 소비지출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주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소비 욕구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은 소비행태를 변화 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측면에서 주생활비 세목에 대한 소비지출구조의 분석을 통하여 주생활에 대한 요구의 변화와 소비행태가 어떻게 변화 하였는가를 분석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중 소비사회에서 소비자로서 주부가 합리적인 가계소비지출을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소비지출 : 실지출중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직접소비하는 것을 소비지출이라 한다. 현행 우리나라 도시가계조사자료에 사용되고 있는 소비지출 비목에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기타소비지출이 포함된다.

2) 주생활비 : 각 국의 생활양식과 가계특성에 따라 가계비목의 분류체계가 다르게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기획원의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따르면 1982년 이전에는 주거비에 집세, 주택수리비, 가구집기비가 포함되지만, 1982년 부터 비목이 세분화되어 주생활관련 비목은 주거비(월세, 주택설비 및 수리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비목으로 분리되어 있다. 또한 국가별로도 주거비에 대한 세목이 일정하지 않으며 명칭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국민경제체제나 프랑스의 경우 주거비는 주거 및 광열비로, 대만은 주거 및 수도세로 분류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생활양식이 비슷한 관계로 비목 분류체계가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나라별 분류체계를 통합하여 주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되는 소비지출로 월세, 주택설비 및 수리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의 비목을 포함해서 주생활비로 간주한다(〈표 1〉 참조).

4. 연구의 내용 및 분석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1982-1992년의 경제기획원의 도시가계 연보를 이용하여 도시 근로자가계의 주생활비의 전체소비지출에 대한 구성비의 소비지출구조를 분석하고, 소득계층별, 가구주직업별, 가구원수별, 가구주연령별로 엔겔함수(한계소비성향, 소득탄력성계수)를 추정한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SAS Program을 사용하여 첫째, 주생활비의 전체소비지출에 대한 구성비를 구하기 위하여 percentile을 산출하였다.

둘째, 소득계층별, 가구주직업별, 가구원수별, 가구주연령별 엔겔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최소자승법(O.L.S)에 의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경제기획원의 도시가계조사자료

〈표 1〉 국가별 주생활관련 비목의 분류체계*

국 가	주 생활 비
한 국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일 본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대 만	주거 및 수도세, 연료 및 전기, 가구 및 가정설비, 가사관리
I.L.O(국제노동기구)	주거비, 가구·비품·가사운영비
新S.N.A(新國民經濟體系)	주거 및 광열비, 가구·비품·가정기구 및 가계잡비
미 국	주거비
영 국	주거비, 광열비
독 일	주거, 전기·가스·연료
프 랑 스	주거 및 광열, 가구·세간·가사재료·가사용품·주거유지

* 奥村忠雄·多田吉三 共著, 「都市家計の調査方法」(光生館, 1981), p.35, 김영숙. 한국가정의 가계소비유형 분석, 1989, p.52., 재인용.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소비지출분류와 제외국의 소비지출분류」를 참고로 재정리 하였다.

를 재정리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는 1982년 가계비목이 5대 비목에서 9대 비목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연구의 범위를 1982년 이후로 제한하였다.

둘째, 소비구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통계자료의 결과로서 소비이론에 접근한다는 것은 그 범위가 제한되며, 본 연구는 계량적연구로 주생활비의 지출구조를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가계분석이론

개개의 품목을 초월하여 생활의 총액을 소득의 함수로 본 것은 Keynes의 일반이론 이후이다(김미향, 1989). Keynes(1936)는 단기적으로 소비수준은 주로 현재소득의 절대적인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절대소득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케인즈의 기본가정은 첫째, 실질소비는 실질소득 즉, 절대소득의 안정된 함수이다. 둘째, 한계소비성향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다. 셋째,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떨어진다(박홍립, 1989). 이 세가지 기본 가정을 만족하는 함수는 소비를 C, 소득을 Y라할 때 식 (1)과 같다.

$$C = \alpha + \beta(Y) \dots \dots \dots (1)$$

(α : 기초소비, β : 한계소비성향)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이 제시된 이후 이론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험적 측면에서도 많은 소비함수의 논쟁이 있어 왔다. 특히 장기시계열에 있어서 Kuznetz(1946)의 실증분석이 절대소득과 다른 결과를 보임에 따라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그 대표적 이론들이 Dusenberry(1967)의 상대소득가설, Friedman(1957)의 항상소득가설, Ando와 Modigliani(1963)의 생애 주기가설이다.

앵겔함수는 가계지출의 각 비목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측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으로 소득을 설명변수로 하여 가계의 비목별 또는 품목별 지출을 설명하는 이론모형으로서 앵겔함수에 의해 도출된 앵겔곡선은 어느 가계의 특정소비재의 지출이 소득과 더불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낸다. 일반적인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C_i = \alpha_i + \beta_i \cdot Y_i + \mu_i \dots \dots \dots (2)$$

$$\ln C_i = \alpha_i + \beta_i \cdot \ln Y_i + \mu_i \dots \dots \dots (3)$$

(C_i : 가구당 비목별 소비지출, Y_i : 가구당 가처분 소득, μ_i : 오차항)

(2) 식의 회귀계수 (β_1)는 i 재의 한계소비성향

(3) 식의 회귀계수 (β_1)는 i 재의 소득탄력성

두 추정식에서 한계소비성향과 소비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다. (2)의 식은 선형회귀방정식으로 Allen과 Bowley(1935)이래 널리 사용되어 왔다. (3)의 식은 양대수형으로 Stone, Prais & Houthakker에 의하여 사용되어 왔다(1971).

Allen과 Bowley는 각 가계비목의 지출액을 직접 나타내는 것에 의해 식료품비의 소비의 비율만이 아니라 다른 가계비목이나 품목에까지 이와 같은 도식을 확장 하여 회귀식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 시도를 엔겔법칙의 일반화라 부르고 있다.

가계조사자료에 대한 회귀방정식의 적용은 각 가계비목의 긴급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었다. 즉, 소득탄력성의 수치의 대소에 따라 그 비목의 경제적 성질은 대소관계가 가계지출의 긴급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김영숙, 1989). 즉, 탄력성 계수가 적을수록 긴급도가 높고 탄력성 계수가 클수록 긴급도가 낮다(이기춘, 1991). 소득탄력성(β_1)의 의미를 살펴보면, $\beta_1 > 1$ 인 비목은 우등재로서 이것은 수입의 증가에 따라 수입률 이상으로 증감하려 한다. 따라서 탄력성이 1이상이 되는 재화이다. 반대로 $\beta_1 < 0$ 인 비목은 열등재로 불리우고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감소하려고 하는 재화이다. 그리고 그 중간값을 취하는 것이 필수재이다.

2.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가계분석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경제개발계획 실시 이후 자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성격상 소득에 관한 연구,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 저축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초기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인 소비구조와 소비함수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의 연구동향은 비목별 소비지출에 대한 결정요인을 확인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식료품비(김미향: 1989, 정용선: 1989), 교육비(이정수:

1974, 지영숙: 1975, 박명희: 1976, 금은순: 1984, 최승애: 1985), 피복비(김영숙·왕인숙: 1989), 교통·통신비(이신화: 1994)등의 각 소비지출 비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 근로자가계를 중심으로 주생활비와 관련된 인구통계적·사회경제적변인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계층

주거비는 월세와 주택수리비를 포함한 것으로 이기영(1973)과 한길례(1978)의 연구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약간씩 체감하고 있으나 상위소득단계부터는 주거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주거비중에서 방세의 비율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가소유가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었고, 광열비의 경우도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었다.

김정훈(1984)의 연구에서는 주거비는 소득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뿐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나 주거비중 가구집기 및 주택수리비의 세목에 대한 지출비중은 소득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반면 방세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김영숙(1989)과 박선미(1990)연구에서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의 추정결과 1982-1986 주거비의 한계소비성향은 고소득층에서 낮게 나타났고, 소득탄력성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1보다 큰 선택적 비목으로 나타났다. 광열·수도비의 한계소비성향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게 나타났고, 소득탄력성은 1보다 적은 필수적인 항목으로 나타났다.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의 한계소비성향은 저소득층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소득탄력성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1보다 큰 선택적 비목으로 나타났다.

2) 가구주직업

가구주직업별로는 이기영(1973)과 한길례(1978)의 연구에서 주거비는 자유노무자 가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광열비는 자유노무자 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이기영의 연구에서 방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계는 일반기능 및 노무자 가계로, 가

장 낮은 가계는 관리 및 경영자 가계로 나타났고, 가구에 있어서는 관리 및 경영자 가계가 가장 높고, 자유노무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숙(1989)과 박선미(1990)의 연구결과 1982-1986년 사이의 주거비의 한계소비성향은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탄력성은 기타분류불능자 가계를 제외한 모든 가계에서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가계는 소득탄력성 계수가 2.320으로 매우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광열·수도비의 경우 모든 직업에서 모두 1보다 적은 필수적 비목으로 나타났고,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군인 및 기타분류불능자 가계를 제외한 가계에서 1보다 큰 선택적 비목으로 나타났다.

3) 가구원수

한길례(1978)의 연구에서는 주거비는 가구원수가 증가할 수록 증가하여 2인 가구에서 가장 낮고, 8인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 방세의 경우 2인 가계에서 가장 높고,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6인 이하 가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7인과 8인 가구에서 6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체감하였다. 광열비는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비율은 낮아졌다. 김정훈(1984)의 연구도 주거비는 한길례의 연구와 일치하지만 광열비의 경우 가구원수의 증가에 따라 증가 경향을 보였다.

김영숙(1989)과 박선미(1990)의 연구에서 주거비의 한계소비성향은 2인 이하 가계에서 가장 높고 소득탄력성은 2인 이하와 6인 이상에서 1보다 큰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광열·수도비의 한계소비성향은 2인 이하 가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가구원수별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박선미의 연구에서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5차 년도에 와서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졌고 소득탄력성도 1보다 큰 선택적 비목으로 변화였다.

4) 가구주연령

김정훈(1984)의 연구에서 주거비는 월세 및 주택설비와 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20대와 30대 후반에

서 가장 비중이 크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50대 후반에서 가장 낮아지다 다시 증가한다. 광열비의 경우 일생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비목으로 나타났다.

김영숙(1989)과 박선미(1990)의 연구에서 1982-1986년 사이의 주거비는 월세와 주택설비 및 수리비를 포함한 것으로 24세 이하 가계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탄력성도 24세 이하 가계에서 1보다 큰 탄력적 비목으로 나타났고, 그의 가계는 1보다 적은 필수적 비목으로 나타났다. 광열·수도비는 24세 이하 가계에서 낮게 나타났고,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한계소비성향은 30세 이하 가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득탄력성계수는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가 모든 연령층에서 1보다 적은 필수적 비목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 볼 때, 소득은 가계소비지출구조를 구성하는 중요한 경제적 변수이고 가구주직업은 소득의 크기를 결정하는 커다란 요인의 하나이므로 가구주 직업에 따라서 가계의 소비행위도 달라질수 있다. 또한 가구원수는 소비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가구주 연령에 따라서도 가족규모 및 그 구성이 변화하므로 이 4가지 인구통계적·사회경제적변인에 따라 주생활비의 소비지출구조를 분석하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Ⅲ. 주생활비의 소비지출구조분석

1. 소비지출구조의 추이분석

경제기획원의 도시가계조사자료에 의한 1982년부터 1992년 까지의 주생활비 세목의 전체소비지출에 대한 구성비는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월세의 전체소비지출에 대한 구성비는 82년에서 86년 사이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다가 86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며, 주택설비 및 수리비의 구성비는 90년 이후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광열·수도비의 경우 구성비가 1982년 7.7%, 1986년 6.7%, 1992년 4.1%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는 1982년 4.3%에서 1989년 5.9%를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였다.

〈표 2〉 전체소비지출에 대한 주생활비의 구성비 추이분석

연 도	소비지출		월 세		주택설비·수리		광열·수도		가구·가사용품		기 타	
	원		원	%	원	%	원	%	원	%	원	%
82	317,052		6,526	2.73	2,993	1.25	18,398	7.69	10,377	4.34	786	0.33
83	364,019		7,203	2.72	3,673	1.39	19,326	7.31	12,564	4.75	1,137	0.43
84	402,297		8,153	2.83	3,826	1.33	20,823	7.22	13,871	4.81	1,452	0.50
85	431,183		8,583	2.77	4,113	1.33	22,459	7.25	14,852	4.80	1,565	0.51
86	481,018		9,488	2.80	4,433	1.31	22,708	6.70	17,296	5.10	1,669	0.49
87	561,675		10,028	2.58	5,044	1.29	24,119	6.21	20,725	5.33	1,806	0.47
88	657,215		10,635	2.34	6,150	1.35	24,726	5.44	24,767	5.46	2,106	0.46
89	804,900		11,900	2.11	9,100	1.62	25,800	4.59	33,200	5.91	2,400	0.42
90	943,300		13,600	2.09	14,000	2.15	29,100	4.47	37,800	5.82	2,300	0.35
91	1,158,600		15,700	2.01	16,100	2.07	32,200	4.13	45,500	5.84	2,700	0.34
92	1,356,100		16,700	1.85	16,900	1.87	37,200	4.12	49,200	5.45	4,300	0.47

2. 잉겔함수의 추정

주생활비의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의 한계소비성향($\beta=0.05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세의 한계소비성향($\beta=0.01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탄력성계수는 주택설비 및 수리비($\alpha=-9.247, \beta=1.390$)와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alpha=-4.815, \beta=1.113$)에서 α 계수가 -이고 β 계수가 1보다 큰 선택적인 세목으로 나타났고, 월세($\alpha=0.561, \beta=0.670$)와 광열·수도비($\alpha=4.113, \beta=0.463$)는 α 계수가 +이고 β 계수가 1보다 적은 필수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의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소득탄력성계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비와 주택설비 및 수리비가 1보다 큰 탄력적 세목으로 나타난 것은 소득의 향상으로 인한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주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월세와 광열·수도비의 경우 필수적 세목으로서 여전히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긴요도

가 높은 세목으로 볼 수 있다.

1) 소득계층별 잉겔함수의 추정

소득계층별* 주생활비의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월세의 한계소비성향은 저소득층($\beta=0.036$), 중소득층($\beta=0.016$), 고소득층($\beta=0.010$)으로 소득계층이 높아질 수록 낮게 나타났고, 소득탄력성은 고소득층($\alpha=-5.062, \beta=1.033$)에서 α 계수가 -이고 β 계수가 1보다 큰 선택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주택설비 및 수리비의 한계소비성향은 저소득층($\beta=0.023$), 중소득층($\beta=0.024$), 고소득층($\beta=0.025$)으로 나타나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한계소비성향은 높게 나타났다. 소득탄력성은 또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탄력적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소득계층에서 α 계수가 -이고 β 계수가 1보다 큰 선택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광열·수도비는 저소득층에서 한계소비성향($\beta=0.039$)이 가장 높고 소득탄력성($\alpha=2.706, \beta=0.568$)도 α 계수가 +이고 β 계수가 1보다 적은 필수적인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1982-1992.

도시근로자가계를 기준으로 소득계층별 표본가구의 누적백분비에 따라 저소득층 가계 40%, 중소득층가계 40%, 고소득층가계 20%로 분류하였다.

〈표 3〉 세목별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

구 분	한 계 소 비 성 향			소 득 탄 력 성		
	α	β	R ²	α	β	R ²
월 세	3768.8	0.015***	0.982	0.561	0.670***	0.982
주택설비·수리	-3132.5	0.023***	0.964	-9.247	1.390***	0.977
광열·수도	13406.0	0.025***	0.969	4.113	0.463***	0.961
가구집기·가사용품	-1434.3	0.056***	0.956	-4.815	1.113***	0.977

*** p<.001

〈표 4〉 소득계층별 주생활비의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

구 분		한 계 소 비 성 향			소 득 탄 력 성		
		α	β	R ²	α	β	R ²
월 세	저소득층	4998.7	0.036***	0.954	1.150	0.677***	0.946
	중소득층	5445.2	0.016***	0.870	1.895	0.583***	0.887
	고소득층	-139.7	0.010***	0.803	-5.062	1.033***	0.718
주택설비 및 수리	저소득층	-2495.9	0.023***	0.863	-13.872	1.749***	0.888
	중소득층	-3676.5	0.024***	0.947	-12.636	1.644***	0.966
	고소득층	-2931.8	0.025***	0.909	-7.100	1.236***	0.897
광열·수도	저소득층	7292.1	0.039***	0.976	2.706	0.568***	0.980
	중소득층	52287.0	0.036	0.017	8.315	0.148	0.009
	고소득층	-163964.0	0.032**	0.611	-15.013	1.936**	0.613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저소득층	-1522.2	0.053***	0.967	-5.797	1.217***	0.970
	중소득층	-2556.6	0.057***	0.981	-5.647	1.206***	0.981
	고소득층	-5926.3	0.070***	0.941	-5.464	1.197***	0.959

* p<.05 ** p<.01 *** p<.001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층($\alpha=-15.013$ $\beta=1.936$)에서 α 계수가 -이고 β 계수가 1보다 큰 선택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의 한계소비성향은 저소득층($\beta=0.053$), 중소득층($\beta=0.057$), 고소득층($\beta=0.070$)으로 나타나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은 높게 나타났다. 소득탄력성은 전 소득계층에서 α 계수가 -이고 β 계수가 1보다 큰 선택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월세와 광열·수도비가 저소득과 중소득에서 소득탄력성계수가 1이하로 나타나 생활에 필수적인 세목으로 긴요도가 높은 반면 고소득층 가계에서 탄력성계수가 1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월세의 경우 고소득층에서 주택의 자가소유율이 높은 관계로 월세는 오히려 선택재의 성격을 띤다고 본다. 광열비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가격차가 많이나고 또한 소득의 안정성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고급화된 가전제품의 수요가 많아져 고소득층에서 선택적인 세목으로 나타

난다고 볼 수 있다

주택설비 및 수리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는 고 소득층으로 갈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지고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탄력적 세목으로 나타난 것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주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 가구주직업별 Engel함수의 추정

가구주직업별 주생활비의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월세의 한계소비성향은 판매종사자가계($\beta=0.02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탄력성은 전문기술직 및 관련종사자가계($\alpha=-8.366$, $\beta=1.279$)가 α 계수가 -이고 β 계수가 1보다 큰 선택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주택설비 및 수리비의 경우 군인 및 기타분류불능자 가계에서 한계소비성향($\beta=0.03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탄력성계수도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가계와 서비스종사자 가계를 제외한 모든 가계에서 α 계수가 -이고 β 계수가 1보다 큰 선택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광열·수도비의 한계소비성향은 판매종사자, 군인 및 기타분류불능자, 생산장비 및 단순노무자 가계를 제외한 다른 가계에서는 한계소비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소득탄력성은 모든 직업계층에서 α 계수가 +이고 β 계수가 1보다 적은 필수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의 한계소비성향은 판매종사자가계($\beta=0.06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탄력성은 사무관련직종사자 가계($\alpha=-4.909$, $\beta=1.151$), 판매종사자가계($\alpha=-6.590$, $\beta=1.279$), 생산운수장비종사자 및 단순노무자($\alpha=-6.209$, $\beta=1.253$), 군인 및 기타분류불능자 가계($\alpha=-6.423$, $\beta=1.262$)에서 α 계수가 -이고 β 계수가 1보다 큰 선택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를 살펴 볼 때 가구주의 직업은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월세의 경우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가계에서 소득의 안정성으로 인한 주택의 자가소유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필수적인 세목이라기 보다 선택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광열·수도비의 경우 가구주 직업이 소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것은 다소 김영숙(1989), 박선미(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택설비와 수리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경우 거의 모든 집단에서 선택적 세목으로 나타난 것은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구입보다는 장식을 위한 소비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 가구원수별 Engel함수의 추정

가구원수별 주생활비의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월세의 한계소비성향은 2인 이하 가계($\beta=0.03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한계소비성향은 낮아지고 있다. 소득탄력성계수는 모두 α 계수가 +이고 β 계수가 1보다 적은 필수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주택설비 및 수리비의 한계소비성향은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한계소비성향은 높아졌다(6인 가계: $\beta=0.034$). 소득탄력성은 모두 α 계수가 -이고 β 계수가 1보다 큰 선택적 세목으로 나타났다.

광열·수도비의 한계소비성향은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소득탄력성계수도 모두 α 계수가 +이고 β 계수가 1보다 적은 필수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의 한계소비성향은 타세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탄력성계수도 모두 α 계수가 -이고 β 계수 1보다 큰 선택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월세에 있어서 2인 가계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것은 이 시기가 가정형성의 초기 단계로 소득의 불안정성에 기인하여 셋방에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주택설비 및 수리비의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것은 시기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므로 생활이 안정적으로 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주생활에 대한 소비욕구가 다양해지므로 한계소비성향이 높고 탄력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광열·수도비

〈표 5〉 가구주직업별 주생활비의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

구 분		한 계 소 비 성 향			소 득 탄 력 성		
		α	β	R ²	α	β	R ²
월 세	직업 1	-264.3	0.011***	0.676	-8.366	1.297***	0.705
	직업 2	-630.5	0.009	0.329	-7.669	1.199	0.315
	직업 3	10261.0	0.005	0.100	18.675	0.758	0.119
	직업 4	570.2	0.010***	0.953	-3.843	0.948***	0.918
	직업 5	4008.7	0.026***	0.971	0.004	0.742***	0.958
	직업 6	7610.3	0.014*	0.459	7.215	0.174	0.110
	직업 7	5462.7	0.019***	0.937	1.886	0.591***	0.970
	직업 8	3885.5	0.009*	0.407	0.777	0.624***	0.183
주 택 선 비 및 수 리 비	직업 1	-1790.9	0.023***	0.803	-6.646	1.201***	0.895
	직업 2	-916.7	0.023***	0.781	-5.819	1.146***	0.810
	직업 3	3905.8	0.013	0.164	4.681	1.033	0.349
	직업 4	-3056.2	0.024***	0.975	-7.258	1.244***	0.958
	직업 5	-2363.3	0.018***	0.865	-9.928	1.418***	0.802
	직업 6	2800.6	0.010	0.289	6.875	0.137	0.029
	직업 7	-3827.2	0.025***	0.962	-12.461	1.632***	0.976
	직업 8	-5112.9	0.033***	0.735	-9.417	1.415**	0.674
광 열 · 수 도 비	직업 1	21703.0	0.016***	0.806	5.922	0.334***	0.771
	직업 2	25793.0	0.013***	0.688	6.875	0.267**	0.642
	직업 3	38217.0	0.010	0.344	7.701	0.244*	0.537
	직업 4	18164.0	0.020***	0.941	5.194	0.387***	0.922
	직업 5	12766.0	0.026***	0.967	4.288	0.448***	0.959
	직업 6	16235.0	0.019*	0.552	8.477	0.124	0.141
	직업 7	10641.0	0.029***	0.982	3.406	0.514***	0.980
	직업 8	12549.0	0.026***	0.904	4.106	0.462***	0.895
가 구 집 거 및 가 사 용 품 비	직업 1	1357.9	0.053***	0.949	-3.127	0.017***	0.952
	직업 2	3825.0	0.050***	0.839	-2.635	0.981***	0.883
	직업 3	40492.0	0.013	0.051	5.605	0.380	0.156
	직업 4	-3751.0	0.062***	0.997	-4.909	1.151***	0.992
	직업 5	-4890.2	0.064***	0.997	-6.590	1.279***	0.988
	직업 6	5568.2	0.051**	0.540	6.038	0.298	0.130
	직업 7	-3800.8	0.063***	0.986	-6.209	1.253***	0.987
	직업 8	-3807.8	0.060***	0.908	-6.423	1.262***	0.923

* p<.05 ** p<.01 *** p<.001

직업 : 1: 전문기술직 및 관련직종사자 2: 교원 3: 행정 및 관리직종사자

4: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서비스종사자 7: 생산운수장비종사자 및 단순노무자

8: 군인 및 기타분류불능자

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가구원수의 증가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은 일정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광열·수도비는 필수적 세목으로서 필요도가 높은 반면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소득증가를 이상으로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선택적인 세목으로서 필요도가 낮은 세목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4) 가구주연령별 앵겔함수의 추정

가구주연령별 주생활비의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월세의 한계소비성향은 25-29세($\beta=0.03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탄력성은 24세이하($\beta=$

0.688)에서 가장 낮고, 55세이상($\beta=0.90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4세 이하와 35-39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α 계수가 -이고 β 계수가 1보다 적은 필수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주택설비 및 수리비의 한계소비성향은 가구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은 높게 나타나 55세 이상($\beta=0.04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탄력성 계수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여 55세 이상($\beta=1.47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모든 연령대에서 α 계수가 -이고 β 계수 1보다 큰 선택적인 성격으로 나타났다.

광열·수도비의 한계소비성향은 연령에 관계없이

〈표 6〉 가구원수별 주생활비의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

구 분		한 계 소 비 성 향			소 득 탄 력 성		
		α	β	R ²	α	β	R ²
월 세	2인이하	5913.5	0.038***	0.898	0.142	0.763***	0.888
	3인	4756.2	0.023***	0.957	1.094	0.657***	0.973
	4인	4736.3	0.011***	0.936	2.081	0.546***	0.948
	5인	3464.7	0.008***	0.931	2.249	0.059***	0.864
	6인이상	1820.7	0.007***	0.757	0.648	0.068***	0.753
주택 설비 및 수리	2인이하	-987.9	0.012***	0.788	-10.525	1.453***	0.778
	3인	-2353.5	0.019***	0.952	-10.329	1.460***	0.961
	4인	-2945.9	0.023***	0.914	-9.053	1.373***	0.940
	5인	-4298.9	0.027***	0.972	-9.163	1.389***	0.971
광열 · 수도	2인이하	8791.4	0.024***	0.968	3.795	0.469***	0.957
	3인	10861.0	0.026***	0.966	3.831	0.477***	0.957
	4인	13394.0	0.025***	0.972	4.142	0.460***	0.967
	5인	14341.0	0.027***	0.978	3.570	0.511***	0.975
가구 집기 및 가사 용품	2인이하	680.6	0.058***	0.971	-2.964	1.012***	0.975
	3인	-1553.7	0.062***	0.991	-4.537	1.131***	0.984
	4인	-3712.9	0.063***	0.990	-5.670	1.210***	0.989
	5인	-2337.4	0.055***	0.964	-4.963	1.148***	0.982
	6인이상	-7663.1	0.062***	0.995	-6.356	1.249***	0.991

* p<.05 ** p<.01 *** p<.001

〈표 7〉 가구주연령별 주생활비의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

구 분		한 계 소 비 성 향			소 득 탄 력 성		
		α	β	R ²	α	β	R ²
월 세	24세이하	6272.7	0.026***	0.886	1.121	0.688***	0.867
	25-29세	2297.2	0.032***	0.959	-1.190	0.839***	0.954
	30-34세	2968.1	0.020***	0.995	-0.275	0.743***	0.997
	35-39세	3581.0	0.012***	0.886	0.757	0.645***	0.916
	40-44세	2669.0	0.011***	0.895	-0.530	0.727***	0.906
	45-49세	3046.2	0.009***	0.946	0.707	0.625***	0.918
	50-54세	739.9	0.012***	0.651	-1.212	0.765***	0.633
	55세이상	446.6	0.016***	0.949	-2.806	0.903***	0.916
주 택 설 비 및 수 리 비	24세이하	-1720.6	0.018***	0.601	-8.685	1.327***	0.737
	25-29세	-433.1	0.009***	0.808	-6.124	1.099***	0.818
	30-34세	-582.2	0.014***	0.746	-7.238	1.217***	0.884
	35-39세	-2721.9	0.023***	0.993	-7.649	1.272***	0.921
	40-44세	-3746.6	0.028***	0.942	-8.160	1.321***	0.947
	45-49세	-4568.4	0.026***	0.801	-8.659	1.343***	0.870
	50-54세	-5056.0	0.032***	0.967	-9.852	1.455***	0.966
	55세이상	-9443.8	0.041***	0.864	-10.190	1.478***	0.944
광 열 · 수 도 비	24세이하	9697.0	0.027***	0.984	3.586	0.495***	0.963
	25-29세	11054.0	0.026***	0.948	4.008	0.464***	0.936
	30-34세	12555.0	0.026***	0.936	4.124	0.460***	0.924
	35-39세	14593.0	0.023***	0.951	4.478	0.436***	0.949
	40-44세	15399.0	0.024***	0.979	4.287	0.454***	0.975
	45-49세	16384.0	0.023***	0.978	4.407	0.445***	0.971
	50-54세	17081.0	0.023***	0.948	4.587	0.433***	0.933
	55세이상	15307.0	0.024***	0.939	4.144	0.465***	0.939
가 구 집 기 및 가 사 용 품 비	24세이하	-3463.7	0.065***	0.981	-5.843	1.228***	0.967
	25-29세	-1766.3	0.064***	0.955	-4.715	1.146***	0.970
	30-34세	-1670.3	0.060***	0.979	-4.950	1.158***	0.977
	35-39세	-3074.0	0.063***	0.983	-5.352	1.188***	0.979
	40-44세	-3807.4	0.058***	0.989	-5.650	1.201***	0.985
	45-49세	-7136.4	0.060***	0.980	-6.555	1.261***	0.986
	50-54세	-9200.3	0.066***	0.959	-7.520	1.337***	0.953
	55세이상	-7373.1	0.068***	0.954	-6.522	1.270***	0.973

*p < .05 ** p < .01 *** p < .001

일정하게 나타났고, 소득탄력성 역시 연령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전 연령대에서 α 계수가 +이고 β 계수가 1보다 적은 필수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는 타세목에 비하여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탄력성계수도 전 연령대에서 α 계수가 -이고 β 계수가 1보다 큰 선택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월세의 한계소비성향이 25-2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시기가 가족형성기로서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필수적 세목으로서 가계의 소비지출계획시 긴요도가 높은 세목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설비 및 수리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증가하는 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수준의 안정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성에 기인하며, 특히 55세 이상 가계에서 높은 것은 자녀의 결혼적령기의 가정으로 집안행사 등으로 인한 주택설비 및 수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엔겔함수는 김영숙(1989), 박선미(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광열·수도비는 일생을 두고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필수재로 작용하고 있었고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경우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인하여 주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모든 연령대에서 선택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도시 근로자가계의 주생활비 소비지출구조분석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2년에서 1992년 사이의 소비지출에 대한 월세의 구성비는 86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주택설비 및 수리비는 90년대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광열·수도비의 경우 감소하고 있으며,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엔겔함수의 추정결과 월세의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낮고,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의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탄력성은 주택설비

및 수리비와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가 1보다 큰 선택적인 세목으로 나타났고, 광열·수도비와 월세의 경우 1보다 적은 필수적 세목으로 나타나 긴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는 저소득층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높고, 고소득층에서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선택적인 세목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계층별로도 고소득직업인 전문기술직 및 관련직종사자와 교원 가계에서 선택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에서 자가소유율이 높은 관계로 월세는 오히려 선택재의 성격을 띠다고 볼 수 있으며, 직업은 또한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고소득직업인 전문기술직 및 관련직 종사자가계에서 선택적인 세목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30세 이하 가계에서, 가구원수별로는 2인 이하 가계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탄력성은 1보다 적은 필수적인 세목으로서 긴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택설비 및 수리비는 고소득층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탄력성계수가 1보다 큰 선택적 세목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직업별로는 서비스종사자가계에서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낮고, 소득탄력성계수도 1보다 적은 필수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35세 이하 가계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가구원수별로는 6인 이상 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탄력성은 모든 가계에서 선택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광열·수도비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고, 소득탄력성 계수도 1보다 적은 필수적 세목으로 긴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직업별로는 생산운수장비종사자 가계와 군인 및 기타분류불능자가계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탄력성은 전 직업계층에서 1보다 적은 필수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소득탄력성도 1보다 적은 필수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지며, 소득탄력성은 전 소득계층에서 1보다 큰 선택적 세목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직업별로는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가계에서 한계소

비성향이 가장 낮고, 소득탄력성은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가계를 제외한 가계에서 선택적인 세목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연령별, 가구원수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소득탄력성은 1보다 큰 선택적 세목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1982년에서 1992년의 월세와 광열·수도비의 소비지출은 비교적 안정적인 필수적 세목으로서 긴요도가 높은 반면, 주택설비 및 수리비와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는 소비지출이 증가하였고, 소득탄력성 계수가 1보다 큰 선택적 세목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사회경제적변수 즉, 소득계층, 가구주 직업, 가구주연령, 가구원수가 주생활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중 월세와 주택설비 및 수리비는 소득계층, 가구주직업, 가구주연령, 가구원수에 따라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 계수가 변화하였고, 광열·수도비와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래의 소비지출은 소득의 향상 및 주생활의 요구 증가로 인한 소비행위는 선택적 세목에 대한 지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으며, 가계의 합리적인 운영과 경제생활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거시적차원에서 소비구조나 Engel함수의 추정 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가정환경변인과 개별 가계의 주택형태, 가족의 가치관, 생활양식, 국가의 주택정책등과 관련된 주거환경변인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통계 작성상 주거비는 자가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김미향, 도시가계 식료품 소비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1989.
- 2) 김영숙, 한국가정의 가계소비유형분석,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 3) ———, 왕인숙, 도시가정의 피복류 소비지출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 27권 4.
- 4) ———, 박선미, 한국경제개발계획년도별 가계소비지출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0권 2호, 1992.
- 5) 김정훈, 인구 경제적 변수가 도시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대학원, 1984.
- 6) 금은순, 가정경제에 있어서 제3교육비의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1984.
- 7) 박명희, 사교육비현황과 가계 —서울시 가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14권 1호, 1976.
- 8) 박종수, 도시근로자가계의 소비함수추정, 경상대 논문집, 25(1), 1986.
- 9) 박홍립, 경제학원론, 법문사, 1989.
- 10) 지영숙, 한국 도시가계의 자녀교육비지출 양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논문집, 제20집, 1975.
- 11) 이기영, 전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비구조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1973.
- 12) 이기춘, 가정경제학, 교문사, 1991.
- 13) 이신화, 도시가계의 교통·통신비 소비지출구조 분석 —부산시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1994.
- 14) 이정수, 가정의 경제적 계층과 제3교육비와의 변인적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74.
- 15) 정용선, 소득수준향상과 식료품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1989.
- 16) 정윤화, 의복비 지출로 본 구매행동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학과, 1991.
- 17) 최승애, 도시가정의 자녀교육비지출과 관련변인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학과, 1985.
- 18) 한길례, 우리나라의 가계수입과 소비형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1978.

- 19)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2-1992.
- 20) 설봉식, 한국가계의 소비행위, 서울 : 창문각, 1978.
- 21) A. Ando and F. Modigliani,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 Aggregate Implication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3.
- 22) Allen, R.G.D., and A.L. Bowley, Family Expenditure, London : Staples, 1935, 奥村忠雄·多田吉三, 家計調査の方法, 光生館, 1981, p.28, 再引用.
- 23) Dusenberry, J.,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 24) Frideman, M.,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for NBER, 1957.
- 25) Keynes, J.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MacMillan, 1936.
- 26) Prais, S.J., and H.S. Houthakker, The Analysis of Family Budgets, 2nd ed,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27) S.Kuznets, National Product since 1869, New York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46.